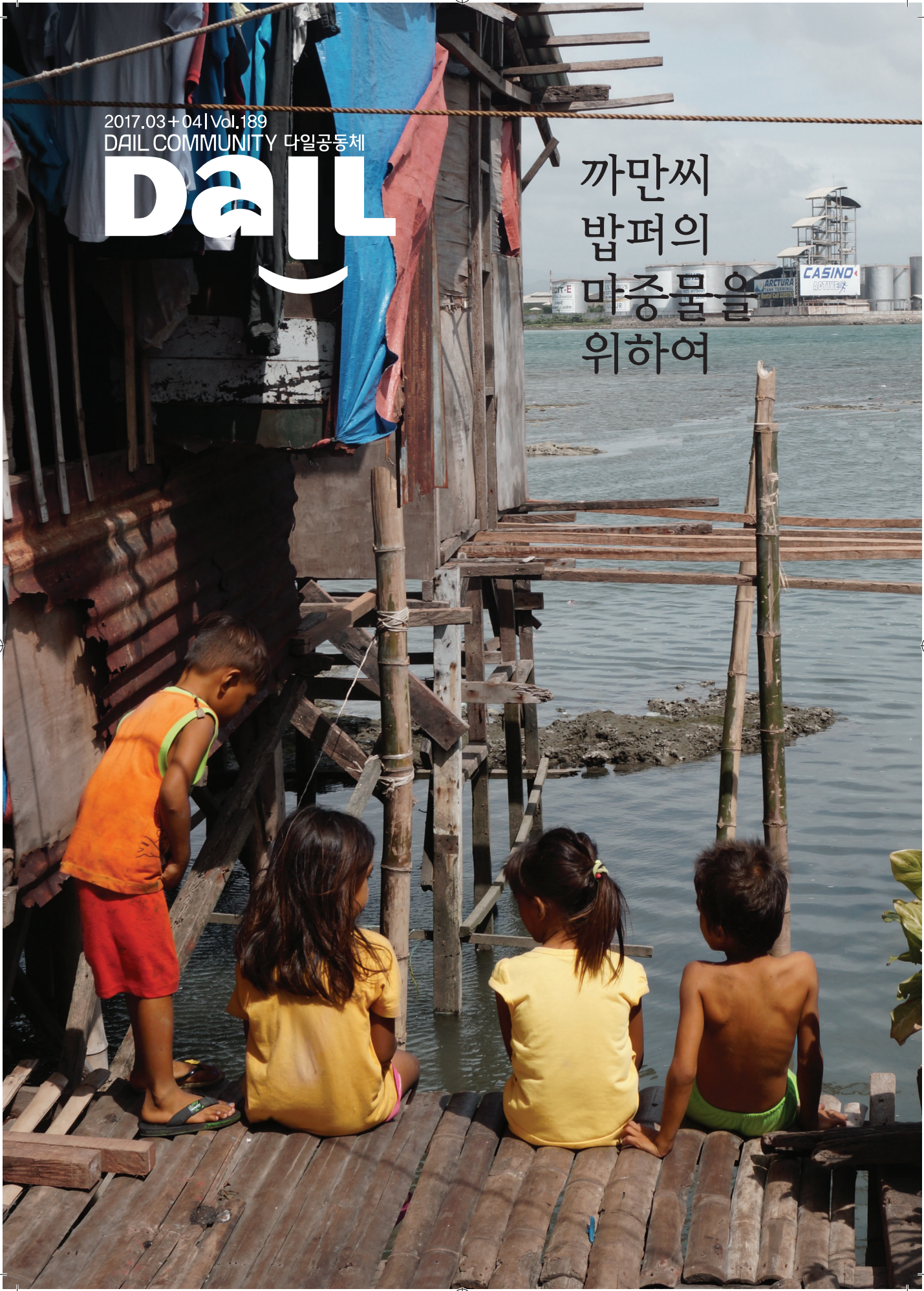


2017.03+04 | Vol.189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DAIL

까만씨
밥퍼의
마중물을
위하여





모두가 희망의 봄을 맞이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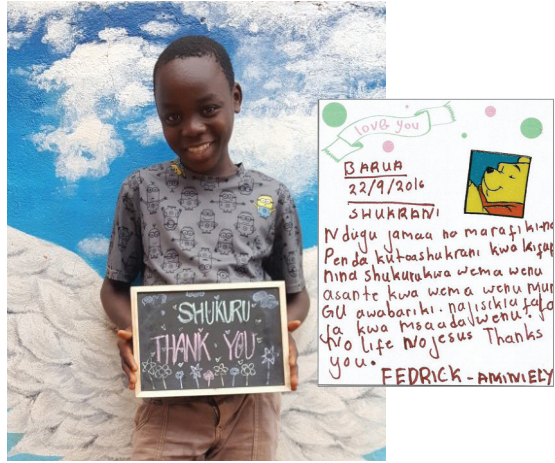
따스한 햇살이 이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드는 봄날, 여러분 댁에도 일터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빕니다. 특히 2017년의 봄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봄이요 새 생명의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필리핀 비전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비전트립 중 저희 일행은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막탄섬 라푸라푸 지역의 수상 빈민촌 까만씨를 찾았는데요, 물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판자로 열기설기 집을 지어 대나무로 서로의 집을 연결해 겨우 지탱해주고 있는 빈민촌 주거 환경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집보다 더 위태로워 보이던 아이들의 눈빛은 다녀온 뒤에도 어찌나 마음을 쓰리게 하는지요. 저는 며칠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던 그 아이들의 눈빛을 떠올리며 까만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실현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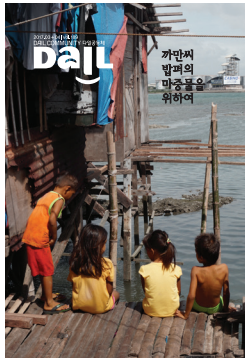
지난해 말, 까비떼에 위치한 필리핀 다일공동체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향한 다일공동체의 꾸준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에 감격한 마을 사람들이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돕기 위해 '폐소의 기적'이란 자발적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이 지난 달 한국에까지 전해져 저희 모두 '폐소의 기적' 나눔 운동을 시작하였는데요. 이 운동을 통해 머지않아 까만씨에도 새로운 다일공동체가 세워지고 밥퍼와 꿈퍼를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까비떼의 기적이 까만씨의 기적으로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더 많은 분들이 '폐소의 기적'에 동참해 주셔서 필리핀 세부의 빈민촌 까만씨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2017년 봄이 진정 희망의 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며 십시일반 정신으로 마중물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작은 형제, *최* 임드 블룸



08 **딩동! 편지왔어요**



c.o.v.e.r.s.t.o.r.y

까만씨 밥퍼의 마중물
 밥퍼를 통해 까만씨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CONTENTS

02

까만씨 밥퍼의
 마중물을 위하여

04

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봄날

07

효성그룹의
 나눔이야기

08

딩동! 편지왔어요

12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25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26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28

신규후원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은진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7년 3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까만씨 밥퍼의 마중물을 위하여

엮기설기 연결되어 있는 대나무 다리

왼쪽으로는 대형 쇼핑몰, 오른쪽으로는 호텔 및 각종 편의시설이 즐비한 대로, 그 옆으로 난 비포장도로를 따라 몇 걸음만 더 들어가면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온듯한 모습의 수상 빈민촌 '까만씨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발자국 더 걸었을 뿐인데 도시의 화려함과 분주함이 순간 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고요하다 못해 쓸쓸하기까지 한 한 무채색의 풍경, 까만씨 마을.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단단한 땅이 아닌 물 위에 대나무로 기둥을 세워 판자로 엮기설기 덮어 지은 집들과 집과 집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연결해 놓은 대나무 다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 보이기까지 한 그 모습에 쓰러질 듯한 수상가옥보다도 더 불온해 보이던 사람들의 눈빛까지 마주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90-50-150

안내자도 없이 무작정 들어간 까만씨에서 저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만난 한 목사님으로부터 까만씨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90퍼센트입니다. 마을 주민의 90퍼센트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에 전 아이들이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50퍼센트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결석이 잦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형편이죠. 지금 뛰어놓고 있는 저 아이들도 오후 세 시만 되면 구걸을 하거나 쓰레기를 주우러 대로변으로 나갑니다.” 도대체 마을의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종일 구걸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건지 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어른 중 150퍼센트가 마약중독자라는 웃지 못 할 농담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죠. 실제로 여기 이 아이들의 부모는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저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거나 마약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거나...”

부모들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중독’의 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구걸한 돈으로 한 시간에 동전을 하나씩 넣고 하는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도박과 마약에 ‘중독’이 되어 마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벽

이야기를 들으며 전 세부는 유명한 관광지이고 까만씨 마을은 방문하기도 쉬운 위치에 있는데 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에드가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후 금방 이해가 되었고 이내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집



위태해 보이는 까만씨 마을의 수상가옥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을을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빵도 주고, 과자도 주며 사진을 찍고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가난을 해결해 줄 듯한 약속을 하고는 떠나갔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이런 일들이 한번 두 번 되풀이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터운 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을 사람들은 방문자에게 이번이 마지막 것처럼 돈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오는 것이 없으면 미련 없이 내 쫓아 버렸고,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스스럼없이 뇌물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일을 하는데 훼방을 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까만씨’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마을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까만씨마을의 해맑은 아이들 모습

이웃이 되어 주세요

목사님과 헤어지며 나는 인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방문자가 아닌 이웃이 필요합니다.”

까만씨 마을을 떠나오며 저는 아무 약속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아 ‘도움을 드리겠다’ 약속을 한들 이들의 마음에 둘러쳐진 마음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단 한마디 대답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일공동체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돈과 다양한 사업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과 많은 날들을 함께 보내며 마음을 연 후에야 비로소 가능할 ‘이웃이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DAJL**

다일공동체는

- 배고픈 아이들에게 매일 매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고 싶습니다.
- 중독에 빠진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 꿈꾸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 까만씨의 참된 이웃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일공동체와 함께
까만씨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봄날을 맞을 수 있도록...

'노숙인 무명 씨의 죽음'...무연고 사망자 한 해 1,200명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하지만 20여 년 전 급속한 성장 속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맞으며 '노숙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 '노숙인'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위기로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사회 저편으로 밀려난 노숙인.

이 후 2017년까지 노숙인은 꾸준히 증가,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만도 현재 연 1,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곳 저곳 떠도는 노숙자들은 크고 작은 질병 하나씩은 달고 삽니다.

자신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병을 방치하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저런 이유들로 노숙인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는 더 빨리 드리워집니다.

소외와 편견의 삶 속 길거리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노숙인.

다일공동체는 이같은 노숙인의 고독한 죽음을 막아보고자 2011년부터 '길 위에서 돌아가시는

이 없을 때까지'란 사명의식으로 노숙인 요양 쉼터 다일 작은천국을 운영중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평~, ‘평~’ 아침부터 풍선 터지는 소리로 요란한 다일 작은천국. “어르신, 이렇게 잡으시면 터져요, 여기 말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붙이셔야..” 미술치료 진행이 한창인 시간. 뽀뽀뽀뽀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은 간만의 미술 활동에 신이 나셨는지 모두들, 저마다의 작품을 만드는데 열심입니다.

노숙인 어르신들이 죽음만 바라보다 무료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 단 하루라도 뜨겁게 보내다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미술치료, 음악치료,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 삶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있는 다일 작은천국. 가장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작은천국 가족들 덕에 어르신들은 정성껏 만든 작품으로 작품전을 열기도 하고, 열심히 배운 악기로 작은 연주회도 가지는 등 늘 어제보다 조금 더 특별한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며칠 안 보이면 불안했어,
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
게 될까봐... 그게 꼭 내 모습
이 될 것 같아서...”**

작은 천국에 입소중인 한명구(가명) 할아버님은 감사한 것이 참 많은 어르신입니다. 약을 드리기 위해 존함을 불러 드릴 때도 편히 주무셨는지 인사를 여쭙을 때도 연신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건네시는 한명구 할아버님. 입소 당일 역시, 어르신은 작은천국에 머물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어쩌나 감사가 넘치셨는지 모릅니다.



오랜 노숙을 끝내시고 작은천국에 입소하신 한명구 할아버님은 노숙인 시절, 함께 노숙을 하던 동료의 죽음을 늘 곁에서 지켜봐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아파서인지 추운 날씨 동사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도 알지 못 한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동료를 발견하게 되거나 오랫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아 궁금해 할 때 즈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건너 건너 전해 듣게 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노숙인들. 아마 할아버님은 두려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그렇게 홀로 외로이 죽어갈까 봐, 그렇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조차 무참히 사라지게 될까 봐 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은 자신의 마지막 생을 함께해주는 작은천국이, 작은천국에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이토록 감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죽음이라는 그 슬픔의 무게는 동일하기에...

작은천국 어르신 각자의 사연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셨든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그 슬픔의 무게는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그 묵직한 슬픔의 무게를 함께 견디며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측면만이 아닌 전인적 돌봄을 지향하는 다일 작은천국. 작은천국은 죽음을 생의 끝점이 아닌 생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으로 믿으며, 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 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안식을 찾아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영적인 쉼을 안겨드리기 위한 마지막 절차, 천국 환송 예배는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직접 집례합니다. 천국환송예배를 통해 연고가 없는 분이 대부분인 이곳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위로가 돼 드리는 다일 작은천국. 어르신들을 더 나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것이기에 작은천국 가족들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애써 눈물을 삼킨 채 마지막까지 살뜰히 배웅해드립니다.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극한의 고독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봄날을 맞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dail**

천국 환송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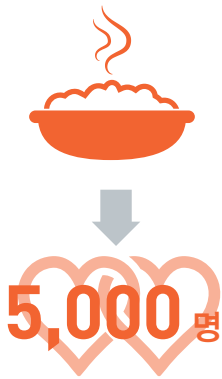


효성그룹의 나눔이야기

다일공동체와 함께 오랜 기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효성그룹. 효성그룹은 올해 역시 다일공동체가 사역을 펼치고 있는 7개국의 빈민촌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한 끼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한 끼 나눔



효성그룹이 다일공동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한 끼 나눔' 사업은 7개국 5,000여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무상급식을 통해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 해줄 뿐 아니라 나아가 당장의 끼니 걱정으로 꿈조차 잃어가는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되찾음으로 아이들에게 내일을 꿈꿀 희망도 심어줍니다.

7개 국가 9개 분원에 일반 급식 외에도 세계 아동의 날이나 성탄절 등 특별한 날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특별 급식도 제공하고 있는 효성그룹.

노재봉 효성나눔봉사단장(부사장)은 평소 "가난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던 아이들이 꿈을 품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빈국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니만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더 많은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공헌 기업 효성그룹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일공동체를 통해 나눔을 실천중인 효성그룹과 같은 기업이 선도그룹이 되어 모두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DAJL**





땡땡! 편지왔어요!

작년 말, 아동들의 사랑이 담긴 편지 받으셨나요?
후원회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 담아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보내 온
아동의 편지와 사진을 후원회원님들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사랑스런 아동들의 편지와 답장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의
따뜻한 편지를 소개합니다.

류재하

꼰 세임 립



>>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잘 지내시나요? 후원자님을 건강
하십니까요? 저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 네가 지난 1년간 착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에 나는 기쁘고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 기
도했다. 내가 사는 한국도 60년 전에는 전쟁 때문에 온 국민
들이 살기가 어려웠단다. 그런데 그 때 미국에 사는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용돈을 아끼고 아껴 한국의 아이들을
후원했지.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성장했었지.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은 아주 기쁜 일이지. 너도 꿈이 의사선생님이라
니, 네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게.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

오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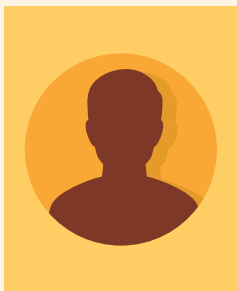
제릭 헤네랄레



>> 제릭 헤네랄레야. 많은 사람들 중 너와 인연이 될 수 있
음에 난 참 감사해.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걸 알
아주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또
한 지금처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
기고, 진실로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가
족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소중한 가
족을 위한 너의 귀한 꿈을 형이 응원하고, 네 옆에서 도와줄
게. 네가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릭 헤네
랄레. 넌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
고, 행복하자!

구연민

락스미 머걸



>> 예수 승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건강하게 잘 지내
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다일공동체를 통해 들었어요. 말
씀 안에서 성장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예요. 힘
내요. 파이팅!

in dolor sit amet, con...

>> 손 스라이 레악의 예쁜 사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주길 기도합니다. 만날 순 없지만 사진 속 모습을 보며 늘 함께 할게요. 사랑합니다.

이미옥

손 스라이 레악



(주)알엠피

쌀리마 쌀룸

>> 매우 감사합니다. 저능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잘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능 후원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쌀리마 쌀룸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릴게요!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김미영

리 쏭파

>> 안녕? 처음 써보는 거라 떨리고 뭘 써야 할까 많이 고민되더라. 우연한 기회를 통해 리 쏭파랑 인연이 되어 기쁘고 감사해. 받은 사진을 보니 아기 같던 얼굴이 형아가 되어가는 걸 보고 감사드렸어. 나는 어렸을 때 꿈이 없었는데 벌써 '경찰관'이란 꿈을 가졌다고 해서 멋진 아이구나라고 생각했어. 좋은 경찰관 되길 기도할게. 항상 주님 안에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범사에 잘 되길 기도해. 좋은 인연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안녕~



김미경

프레데릭 아미니엘

>> 형제들,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레데릭 아미니엘, 일 년 만에 사진을 보니 많이 자랐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 더욱 감사하구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고... 너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하길 바란다. God bless you!♥



in dolor sit amet, con...
ut enim ad...
villamco zabor...
Diss...

이봉구

초은 반다



>> I hope you believe that your dream will come true in the future. Be happy. Be brave. Have a dream and Never give up.

나는 너의 꿈이 미래에 이루 워 질 것 이라는 것을 믿어 행복해지길, 용기를 가지길, 꿈을 가지고 절대 포기 하지 말기를...

임혜란

카보고자 브라이런



>> Merry Christmas! Thank you so much for your card, I really love your drawing for christmas. I'll pray for you, God bless you.

메리크리스마스! 나에게 카드를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너의 크리스마스 그림이 너무 좋아! 너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이인교

짠분 티어



>> 후원자님 잘 지내시나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너랑 인연을 맺고 오는 동안 가슴이 설렘다. 물론 우리 가족들한테도 상세히 얘기했고. 난 개인적으로 네가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무엇이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항상 건강하고 너와 가족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Happy New Year.

서정선

하루나 주마



>> 안녕? 하루나 주마. 나를 먼저 소개해야겠네. 나의 이름은 서정선 (SEO JUNG SEON) 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지. 너를 알게 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더구나. 작년엔 네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는 너의 키가 많이 컸더구나.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소식에 많이 고마웠지. 잘 지내고 있니?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재미있는지 궁금하다. 이왕이면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그곳의 12월은 어떠한지 궁금하네? 한국의 12월은 매우 춥지만, 가끔 하얀 눈이 내리면 세상이 정말 예쁘단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게 예쁜 카드를 보내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야. 그래도 멀리서 항상 네가 건강하고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렴.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너의 친구 정선으로부터.

김동근

땀 사린

>> 예수님을 사랑하고, 후원자님을 사랑해요

>> 땀 사린에게.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먼 거리지만, 항상 땀 사린이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기도하고 있다. 연하장과 사진의 모습을 보니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았다. 캄보디아에 가서 만나보고 싶다. 만날 때까지 안녕히 지내기를...



이승우

레난 조셉 바레다

>> 꼭 1년 전, 너를 만나고 함께 뛰어 놀던 때를 생각해본다. 많이 성장했구나. 어머님도 잘 계시지? 운동 열심히 하여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러봐. 기회가 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가서 함께 식사도하고 즐거운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 또 연락하자. BYE



김태희

닌시마 린다

>> 안녕! 린다! 내가 보낸 크리스마스카드와 사진은 잘 받았어. 사진 속 너의 모습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구나. 항상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 꼭 이루길 기도할게. 우간다에 가게 된다면 꼭 만나고 싶다. I LOVE YOU



최수린

파이 민 쭈

>> 안녕 쭈야! 너의 그림 솜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멋있어 지는구나. 너의 그림편지를 보며,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나는 행복해! 작년에 너의 꿈은 경찰이었는데 올해는 회사원이 되고 싶어 하다니 내년 너의 꿈이 너무 궁금해! 네가 매일 마다 새로운 꿈을 꾸며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아직 후원아동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신 분들은 **아동의 편지와 함께 보내드린 엽서에 편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후원아동에게 후원회원님의 사랑을 전달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 · 장 · 이 · 야 · 기

필리핀 PHILLIPHINE



류주형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필다일 가족 수련회

해외에 다일공동체 분원이 생긴 이래 필리핀 다일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현지 스텝을 포함한 모든 다일 직원들이 함께 1박 2일 '다일 가족수련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을 포함해 저희 가족인 나비님, 교옥님, 은설이, 은승이와 유치원 교사 룯, 그의 딸 체스카, 또 다른 교사 로즈 마리, 밥퍼 주방장 레베카, 나나이 린 다와 마틀린, 필로, 미고, 1대일 아동결연 담당자 조비와 뱃속의 아기 아바, 조비 동생 자나, 다일봉사 단장 리짜, 그리고 KCOC 간사 김소리, 김선주 자매 등 20명이 함께한 1박 2일 다일 가족 수련회. 기대반 걱정반으로 떠난 수련회였는데 어찌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봉고차와 지프니 두 대에 나누어 타고 마따 봉가이의 허름한 리조트로 향한 저희는 리조트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어찌나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는지, 어른이고 아이고를 떠나 '이렇게 환상적인 수련회는 난생 처음'이라며 그렇게 한참을 환호성 질렀습니다. 눈치가 보여 말리는데 어찌나 애를 먹었던지요. 수련회 장소가 바닷가여서 그런지 저희는 1박 2일 동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바베큐 파티

안 물 밖에 있는 시간보다 물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진 찍기 삼매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좋아하는데 이 좋은 걸 왜 이제서야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은 바다에 뗏목을 띄워놓고 그 위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었습니다. 바다 위라 바다에 뛰어 들어 놀기도 하고, 다시 올라와 먹기도 하고, 그러다 낚시를 하기도 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점심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좋았던 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일에 대한 희망을 나누고 모두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동역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DAIL**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필리핀 : 010-2720-5145 (류주형 원장)
후원 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예 금 주: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 필리핀 다일공동체 | +63-927-560-7346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호프클래스 4기를 시작합니다

2월 1일 40명의 호프클래스 4기 신입생들이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처음으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센터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텝들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 칫솔, 치약 등을 준비하고 센터대청소를 하며 아이들의 입학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호기심과 설레임을 가득 안고 입학한 아이들. 새로운 교복과 책가방을 받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가 센터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또 얼마나 맑고 초롱초롱했는지 입학 준비로 인한 고단함도 단숨에 씻겨버지는 듯 했습니다. 1,2,3기 선배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번 4기 입학생들의 첫 느낌 역시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자님, 이번 4기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40명의 학생들 가운데 30여명이 아직 아동결연이 안된 상황입니다. 이미 탄자니아 아동들과 결연하신 분들께서 주위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셔서 제4기 40명 아이들 모두가 속히 결연이 되어 호프클래스를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로장학생 켈빈의 집과 화장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 아버지가 다른 4남매의 장남 켈빈(18세)은 몇 해 전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서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편이 더 어려워진 켈빈은 동생들은 각각 친척집으로 떠나 보냈고, 자신만이 홀로 쿤두치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살길이 막막하여 마을을 배회하던 켈빈은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만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 현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근로장학생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속히 동생들과 함께 모여 살날만을 기다리는 켈빈. 특히 형과 함께 살고 싶다는 날마다 울며 지낸다는 막내 동생 조세파티의 소식에 켈빈은 얼마나 마음아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켈빈은 작년 한국의 장미득 후원자님을 통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유산인 한 칸짜리 방 옆에 1칸의 방과 화장실을 더 지어 뽕뽕이 흠어진 동생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튼튼한 1칸의 방과 물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공사현장에 나가 함께 인부들의 일을 거느라 뜨거운 햇살에 검은 얼굴이 더욱 검어진 켈빈. 하지만, 요즘 켈빈 특유의 미소는 더욱 더 환하게 빛납니다. 동생들과 함께 살 그날, 생각만으로 정말 많이 행복한가 봅니다. 저희도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할 4남매의 가정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미득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dai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255-755-154-246

새 교복과 책가방을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



다일공동체 진지기도를 처음으로 드리는 학생들





네팔 NEPAL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물을 마시도록 도와주세요!

남한의 1.5배가 되는 크기로 3,300만명 정도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국가, 네팔. 세계의 지붕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8,848m의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8천 미터가 넘는 산봉우리만도 8개를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팔 국민 대부분은 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팔은 현재 재작년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 마을이 대부분인 네팔의 경우에는 산이 움직이고, 지각이 틀어지면서 물 길이가 끊기거나 바뀌어 버린 경우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많은 산간 지역 주민들이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식수도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물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지만 네팔은 지금 식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진구호 사업을 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급수시설 설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설이라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일 수도 있으나 급수시설은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거나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계곡에서 물을 모으는 콘크리트 시설과 마을까지 연결하는 호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큰 물탱크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네팔의 산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용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마을과 멀리 떨어진 높은 산에서 물을 직접 떠다가 마십니다.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7시간이나 가야 하는 돌라카라 빌라 마을대표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번 급





- ① 돌라카라빌라 마을
- ② 물 끌어오는 마을에서 2,500m 떨어진 숲 속
- ③ 돌라카라빌라 마을 학교 학생들
- ④ 돌라카라빌라 마을 안 학교

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며 네팔 다일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던중 마침 유인상, 백미선 님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셔서 돌라카라빌라 마을에 급수시설을 마련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급수시설로 1,000여명이 사는 마을, 2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는 마을이 더 이상 멀고 높은 산에서 물을 떠다 마시며 살지 않고 마을 중앙의 큰 물탱크와 연결된 호스를 통해 손쉽게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급수시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뜻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 동참 부탁드립니다. **DAIL**

 **네팔 다일공동체** | +977-98494-58330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헌혈기부권사업 완료

2015 헌혈기부권사업 중 캄보디아 지리피해자 주거 개선과 소득증대 프로젝트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 반티스레이 오마누역 마을 50여 가정의 주택을 개선하였으며, 20여 가정의 소득증대를 위해 닭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5 헌혈기부권사업. 수혜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담긴 모습을 보니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위로왔요친 중고등학교와 씨엠립 교육청 관계자들의 방문

지난 12월 19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웃나라 태국 수린 주에 있는 위로왔요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10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25명의 학생들이 캄보디아 씨엠립 교육청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센터를 찾은 것입니다. 이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교육사업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다일공동체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 받고, 캄다일 안내 영상을 시청하던 참석자들. 참석자들 눈가가 적셔지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을 공활히 여기는 것에는 언어와 국경이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기념식을 가진 교육청 관계자들과 위로왔요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기념식 후, 교장선생님은 10,000바트(\$300) 후원금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전달해주셨고, 이어 그 자리에 계셨던 선생님과 학생들 역시 함께 모은 4,300바트(\$120)를 캄다일을 위해 후원해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원금으로 큰 감동을 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족들. 저희는 그 분들의 사랑과 정성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캄보디아 빵퍼에서 준비한 쿠키로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엘리스자오 사장님과 직원들의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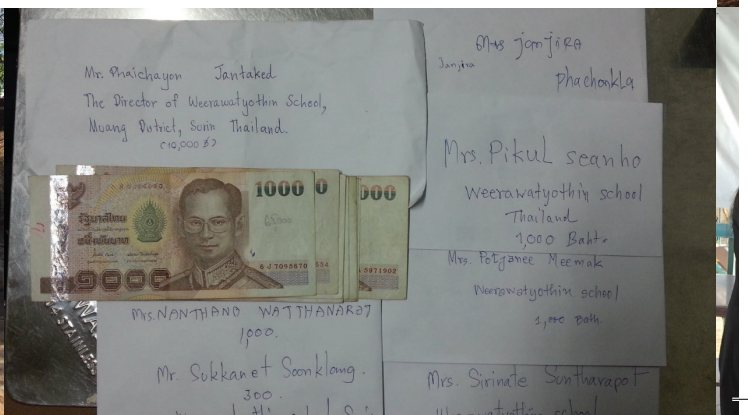
홍콩에서 사업을 하시는 엘리스 자오 사장님과 직원들이 꿈퍼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다녀가신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캄다일과 꿈퍼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엘리스 자오 사장님의 말씀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다니던 BBU대학을 그만두고 간호사의 꿈을 위해 앙코르대학에서 간호학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소피어에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멋지다며 꿈을 응원해주시고, 심부전증으로 인해 몇 차례 쓰러지기도 했고, 앞으로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판눈에게는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면 함께 하겠다며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연락을 달라고 하셨던 엘리스 자오 사장님. 사장님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짧은 캄보디아에서의 일정을 쫓겨 캄다일 센터를 다시 방문해 홍콩 달러 5,000불(꿈퍼에서 전달한 650\$ 정도)에 300\$ 후원금까지 더해 사역에 보태라며 귀한 금액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

헌혈기부권 사업



위로왔요친



는 CEO 모임에서도 캄다일을 위해 함께 중보하겠다
는 약속도 해주신 엘리스 자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더욱 힘이 납니다!

캄보디아 사회부 현장 실사

캄보디아정부 사회부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매 3년이 지나면 사회부와 캄
보디아 다일공동체가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
다. 그에 앞서 사회부는 해당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기관인지 아닌지 먼저 심사를 수행합니다. 이
번에도 조사단은 캄다일의 현장을 둘러보았고 캄다
일의 사업을 보며 올해 역시 감동하였습니다.
사회부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업을 통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것을 당부하였으
며 저희 역시 사회부에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안전
하고 편안한 곳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캄다일이 지역사회를
위해 관련 사업을 더욱 단단히 자리 잡으며 시행해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일 수상유치원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9년부터 운영한 다일 수상유치원은 수상빈민
촌 아동들을 위해 물 위에 세워진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수 년 째 잘 운
영 되어지고 있는 유치원에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
다. 유치원 건물 하부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받치는 두 쪽의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낡아 구멍
이 생겼고 현재 계속 침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한 쪽은
수리가 불가능하여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3mX12mX1.2m의 큰 배인데 제작비와 재조립 인건
비를 합하여 9,000달러(1천8십만 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빈민촌 아동교육을 위해 배 수리가 시급
합니다.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도움
을 주실 개인이나 단체 여러분, 많은 연락부탁드
립니다. **dail**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855-12-808-861

- ① 수상유치원 모습
- ② 엘리스자오 관계자분들
- ③ 사회부 현장 실사 후 단체사진



침수되고 있는
수상 유치원,
도움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다일 졸업생 허성주의 결혼

다일 졸업생 허성주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중국 중경에서 갑자기 결혼식을 하게 되어 가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성주가 아쉬움을 달래줄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어릴 적 만들기를 유독 좋아하던 성주는 현재 중국 난징에서 자동차 네비게이션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의 결혼을 늦게나마 축하하며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중국의 설날이자 훈춘의 춘절, “다일 홈커밍데이”

올해도 어김없이 춘절을 맞아 외지의 다일 졸업생들이 집으로 돌아와 춘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졸업생들이 많지 않은데다 결혼을 해서 지금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얼마 안 되어 아기가 너무 어리기에 오지 못한 경우가 생겨 올해는 좀 조촐한 홈커밍데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올해 역시 행복한 홈커밍데이를 맞은 중국 다일공동체. 형님들은 모처럼 그리운 집에 와 쉴 수 있어 좋고, 동생들은 타지에 나가있던 형님들의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좋고 그저 그것만으로도 서로는 좋은가 봅니다. 새로 온 동생들도 소개하고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며 따뜻하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던 다일 홈커밍데이. 특별히 이번에는 최일도 큰아버지께서 춘절 축하 영상을 재미있게 찍어 보내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풍성하게 홈커밍데이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에도 함께 밴드를 붙여주세요!

우리 집 약상자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품이 무엇 일까요? 소화제도 두통약도 감기약도 아닙니다. 바

로, 밴드! 밴드가 필요 없는 정말 작은 상처에도 아이들은 ‘어머니, 엉엉..’ 하며 아프다고 밴드를 찾습니다. 꼬맹이들만이 아닙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사춘기가 되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무섭다는 중2도 아프다며 밴드를 손수 들고와 직접 붙여 달라고까지 합니다.

많은 식구와 살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밴드를 붙이는 그 시간만큼은 ‘1:다’가 아닌 ‘1:1’로 만나 작은 위로로 건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때 더욱 찾게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그걸 알면서도 저는 가끔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요만한 상처에 밴드를 찾느냐’며 핀잔을 주며 붙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저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비싼 운동화도 유명 연예인이 입고 광고하는 멋진 패딩도 아닙니다. 호호 붙며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며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따스한 품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그럴 능력도 없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따스한 품을 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dail**



① 다일 졸업생 허성주의 결혼
② 중국 다일공동체의 춘절 나기

중국 다일공동체 | +86-433-753-8004

우간다 Uganda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후원자 님들 덕에 건강하게 성장중인

키티코초등학교 학생들

우간다 다일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키티코초등학교는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늪지대에 살고 있는 도시 빈민들의 2세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는 현재 일대일 결연아동이 80명이 되어 키티코초등학교 전교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매일 빵과 우유를 급식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먹을 것 걱정 없이 이제 자신만의 꿈만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찌나 보람이 되고, 기쁘지 모릅니다.

최근 결연아동 중의 한 명인 '바이올라'가 키티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로 진학하였습니다. 후원자이신 김태환 님 덕분에 학비 걱정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바이올라는 성적 또한 전교 2등이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스폰서의 날(후원물품 지급하는 날)에 환한 미소로 우등상장을 보여 주는데 저희가 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의사가 되고 싶으며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던 바이올라. “그래, 바이올라야 그 꿈 꼭 이루거라! 너의 곁에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있다. 파이팅!”

후원자 님의 큰 사랑으로 마련한

전교생에게 전달될 새 책가방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면 가방을 교실 밖에 내어 둡니다. 하나같이 낡은 아이들의 가방을 볼 때마다 전 번듯한 가방 하나씩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에 항상 마음이 울컥거렸습니다.

어느 날, 속상한 제 이야기를 들으신 한 후원자님께서 300여명의 전교생에게 모두 가방을 사주라며 큰 돈을 우간다 다일공동체에 전해주셨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후원자 님이 주신 후원금을 받아 들고 신이 나서 부리나케 가방을 사러 한 쇼핑 센터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예상 가격보다 싸고 훌륭한 가방들을 발견한 전 바로 가방을 주문하였고, 남은 돈으로는 각종 학용품을 사서 새 학기 아이들의 새 가방 안을 채웠습니다. 후원천사 희망이 님 정말 감사합니다. 개학 날 책가방을 선물 받고 행복해할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제 마음이 다 벅차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 따스한 사랑으로 많이 많이 채워주세요! **dail**

우간다 다일공동체 | +256-77107-2382

새학기 선물로 가방을 사는 사진



전교 2등으로 졸업한 바이올라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포스코 캠텍과 함께한 꿈꾸는 도서관

2017년 베트남 바리우-붕따우 지역 탄뿌억 중학교에서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다일공동체에 봉사 와주신 포스코캠텍 임직원분들 함께 뜻 깊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바리우-붕따우 지역에서도 열악한 탄뿌억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도서관까지 정비해주신 포스코캠텍 임직원 분들. 평소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포스코캠텍 직원들은 이날만큼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열정을 다해 벽화를 그리고 도서관 도서 정리 작업을 하며 아이들을 위해 열심으로 봉사해 주었습니다.

탄뿌억 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교정에 나무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며 기쁘게 봉사하는 임직원들 모습에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연신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어색함이 감돌 새도 없이 금방 어우러지며 친해졌던 학생들과 임직원 분들. 봉사 후, 임직원 분들은 학생들의 꿈을 피어나게 할 소중한 책들도 전달해주셨습니다. 험하기만 했던 도서관 공간이 포스코캠텍에서 지원한 기자재들과 도서, 책상과 의자로 꽉 들어찼는데 그 모



드림교회 선물전달

습에 아이들의 꿈이 짝 들어찬 마냥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이뿐 아니라 포스코캠텍 임직원 분들은 탄뿌억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자전거를 전해주는 전달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포스코캠텍 분들과 함께한 일주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푸른 꿈을 안겨준 포스코캠텍 임직원들과 바리우-붕따우 지역 관계자들 그리고 탄뿌억 학생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일주일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 문득 추억이 되어 떠올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포스코캠텍 임직원 분들처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줄 봉사자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2017년 한 해에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베트남 다일공동체, 많이 찾아주세요!

도서관 개원식



포스코캠텍의 벽화봉사



도서관 개원식

포스코캠텍의 벽화봉사



한여름날의 성탄절

매년 기다려지는 날 중 하나인 성탄절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뜻을 모를 지라도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성탄절을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위해 천사가 되어 주시는 사이공드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사이공드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쌀과 라면, 우유, 과자 등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아이들의 교통수단이 되어 줄 자전거를 지원해 주심으로 따뜻한 성탄의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선물과 함께 풍성한 마음으로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찾아와 준 목사님과 성도님들, 덕분에 모두 함께 의미 깊고, 따뜻한 성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게 해주신 사이공드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AIL**

 베트남 다일공동체 | +84-9038-20918

단뿌억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포스코켄텍의 체육활동



학교 교정 정리중인 포스코켄텍 임직원들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변창재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한해를 다짐하는 다일공동체 시무식

2017년의 첫 업무를 시작하는 첫 날!

다일공동체 패밀리 모두가 밥퍼에 모여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지나간 2016년을 되돌아보고 밝아온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서기를 다짐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이 땅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을, 예배예전의 갱신을 통하여 성사생활을,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을, 나누며 섬기는 봉사생활을 추구해 온 다일공동체. 2017년에도 다일공동체는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갈 것 입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의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앞장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밥퍼와 함께하는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PSC Networks)의 시무식

박승철 헤어스튜디오는 해마다 밥퍼와 시무식을 함께합니다. 2014년부터 밥퍼와 사랑의 봉사 결연을 맺고, 체인본부와 각 매장이 자발적으로 후원 캠페인을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직원들의 봉사모습



전개하고 있는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본사와 박승철 뷰티아카데미, 세프스노트, 그라피, 이치엠코스메틱과 매장에서 매달 밥퍼를 후원해주시고 있습니다. 새 해를 맞아 윤이중 사장님과 함께 밥퍼를 찾은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관계자 분들은 본사, 전국 250여개의 체인점에서 근무하는 2,500여명의 임직원들이 모은 1천 8백여 만원을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에 기부해주셨습니다. 또한 체인점 매장에 '사랑의 저금통'을 비치해 미용사님들의 재능기부로 모금한 귀한 성금도 전달해주셨으며 '라이스 팟 릴레이' 행사에 참여하여 365일 세 끼 식사의 소중함을 깨닫는 릴레이 후원에도 참여해주셨습니다. 매년 밥퍼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전해주시니 새해 첫날부터 밥퍼 사랑의 온도는 후끈 올라갔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의 봉사

재현고등학교 학생 50명이 밥퍼에 봉사를 왔습니다. 재현고등학교는 1978년 개교하여 이웃사랑 실천의 숭고한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노원지역 최초의 인문계고로 개교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을 선도해온 학교로써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신앙인 전인격인 지식인'의 양성을 인성 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로만 이뤄진 봉사팀이라 어르신들께 식사를 얼마나 잘 대접해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는데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오히려 감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남학생들로 구성되어 무거운 밥솥도 번쩍번쩍 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원 봉사에 임했던 재현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에 밥퍼에 와서 땀을 흘리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DaIL**

다일 천사병원

DAIL ANGEL'S HOSPITAL

다일 작은천국

DAIL LITTLE HEAVEN



임정순 다일 작은천국 원장

다일작은천국의 설날 맞이 행사

다일 작은천국은 노숙인 입소요양시설로 입소자 특성상 암환자와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는 24시간, 언제든지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작은천국 내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해두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다일 작은천국 직원들은 언제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입소자분들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설 역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입소자분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맞이한 다일 작은천국. 다일 작은천국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입소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자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언 마음도 따스하게 녹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설맞이 음식 준비

1월27일 금요일에는 오전 일찍, 거동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직원식당에 오순도순 모여 삼적꼬치, 동그랑땡, 동태전을 부치면서 설날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예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어르신들도 이날만큼은 두 팔 걷어 부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입소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만든 음식을 먹여주기도 하며 화기애애하게 함께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2017년도 활기차게 새해맞이 어르신들의 노래자랑

1월28일 설날 당일에는 다일 작은천국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시설장님과 입소자분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입소자 분들이 전날 만든 전과 떡국을 함께 먹으며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도에는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라며 인사를 건네신 시설장님. 우리 모두 함께 뜨겁게 포옹을 하며 서로의 건강을 소원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무료함을 느끼셨을 입소자분들을 위해 노래자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소자분들은 노래자랑 시간을 통해 원 없이 스트레스를 푸셨고, 2017년 활기찬 입소 생활을 다짐하셨습니다.

음식만들기

노래자랑



오랜만의 문화 활동, 영화 시청

1월 29일에는 노숙인들이 머무는 쪽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왕초와 용가리”를 시청하였습니다. ‘다일 작은천국’안에서 영화관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팝콘과 음료수까지 준비한 다일 작은천국 직원들. 어르신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영화를 관람하셨습니다.

오랜만의 문화생활로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윷놀이

1월 30일에는 한국의 전통놀이 가운데 지금까지도 남녀노소, 나이불문하고 사랑 받는 윷놀이를 직원, 봉사자, 입소자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팀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윷놀이. 우승 상품이 걸려 있어 그런지 모두 열의를 가지고 윷놀이에 참여하셨습니다.

2017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다일 작은천국. 2017년 한 해도 따스했던 설 명절처럼 다일 작은천국 어르신들이 다일 작은천국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다일**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02-2213-8004**

떡국먹기



영화시청



윷놀이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에밀리 디킨슨

>>>

희망은 날개 달린 것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영혼 가운데 앉아
가사 없는 노래 부르네
그치지 않는 그 노래

모진 바람 불 때 제일 감미로워라
많은 사람 따듯이 감싸준
그 작은 새 당황케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매서운 폭풍이리

나는 가장 추운 땅에서도
가장 낯선 바다에서도 그 노래 들었네
하지만 아무리 절박해도 그것은
내게 먹이를 달라 하지 않았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I . am . a . happy . volunteer

밥퍼 나눔운동본부



두원공과대학교 |

두원공과대학교 이사장님과 임직원 및 학생들이 밥퍼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이라 무료하게 집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자원봉사를 하러 나와 어르신들께 손수 식사를 대접해 드리니 마음이 뿌듯했다고 고백하였고 더불어 비록 멀리 있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봉사하러 오고 싶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 말에 크게 감동한 저희 밥상공동체 가족들, 두원공과대학 여러분들과 머지 않은 시간에 곧 다시 만나 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국커피연합회 |

한국커피연합회 임직원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셨는데요. 커피와 관련된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라 그런지 봉사를 할 은은한 커피 향처럼 부드럽게 실천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커피 산업이 발전하여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더 많이 실천하는 한국커피연합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국커피연합회가 최고야!



대해건축 |

대해건축 사장님과 임직원분들께서 자원봉사를 하러 밥퍼를 찾으셨습니다. 어르신들께 밥을 퍼 드리는 손놀림도 건축 설계하듯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주신 대해건축 분들, 사장님과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따뜻하게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에 이런 행복한 회사가 참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따스함이 어르신들께서도 느껴지셨는지 진심으로 봉사하는 대해건축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는 어르신들도 진지를 드시며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매 년 시간을 내어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그 한결같은 마음에 매번 감동이 됩니다! 내년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작은천국



청량고등학교 유원준 학생 |

청량고등학교를 다니는 유원준 학생은 저희 다일 작은천국에 매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어떤 일을 맡겨도 불평하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봉사활동을 시켜도 만족스럽게 마무리 하는 능력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배려하며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이 멋진 유원준 학생, 계속해서 다일 작은천국을 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북기출판사 단체팀 |

북기출판사 단체팀은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소개로 저희 다일 작은천국 봉사를 하게 된 팀입니다. 북기출판사 단체팀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주신 것은 물론 봉사 하는 내내 웃으면서 사랑으로 저희 어르신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르신들께서 "그 예쁜 친구들 언제 다시 와?" 하시며 그리워하실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행복해하셨습니다. 북기출판사 단체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 번 저희 어르신들 보러 다일 작은천국에 봉사하러 와주시길 희망합니다.



진경여고 단체팀 |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진경여고 선생님과 제자들이 저희 다일 작은천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서울을 올라오셨다고 하셨는데 더욱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희 다일 작은천국까지 방문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씨처럼 진경여고 단체팀은 봉사 또한 열심히 하시고, 진심으로 저희 어르신들을 섬기고 가셨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주었던 진경여고 단체팀, 거리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늘 마음만은 다일 작은천국과 함께해주시길 바라며 곧 또 다시 만나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포스코 캠텍 |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급여 중 1%를 기부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기부를 이곳 베트남 바리우-붕따우의 탄부억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주신 포스코 캠텍, 기부뿐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자원봉사를 실천해 주셨으며,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가와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하는 어우러짐 속에서 하나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신 포스코캠텍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천사의 손 |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한택주 집사님과 사모님, 70대 어머니, 20대 아들과 며느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손주들까지 4대로 꾸려진 20여 명의 봉사팀 가족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0년째 봉사를 해온 가족은 마을 주민들 발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 주고, 발을 씻겨 주고, 신발, 슬리퍼도 만들어주는 등 다양한 섬김을 실천해주셨습니다. 수천 장의 신발 재료를 캄보디아로 가져와 섬기는 기간 동안 1,600여 켤레의 신발을 만들어 나누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준 천사의 손 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늘 축복합니다.



대현교회 |

경기도 남양주 평내 소재 대현교회에서 단기선교 및 봉사 활동을 하러 캄보디아를 방문하셨습니다. 13명의 교회 목사님 집사님 청년 청소년들이 함께 한 일정으로 캄보디아 문화도 경험하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활동 지역에 와서는 가난한 이웃들도 섬겨주셨습니다. 대현교회 선교팀 분들은 봉사를 하며 캄보디아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다음에 또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 십시일반 여행경비를 모아 후원도 해주신 대현교회 선교팀, 그 모습이 참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 다일공동체



연길 기부천사팀 |

중다일이 속한 훈춘 지역이 아닌 멀리 연길에서 봉사팀이 오셨습니다. 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시는 연길 기부천사팀입니다. 영하 18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춘까지 오셔서 정성껏 자장면을 만들어 주신 연길 기부천사팀, 연길 기부천사팀은 각종 식재료, 생필품(양말, 칫솔, 치약)등도 한 아름 선물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중다일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점심을 나누고, 풍성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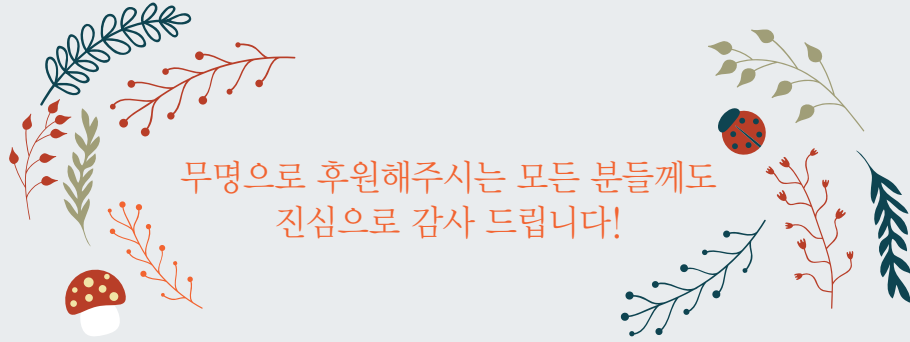


필리핀 현지인 봉사자들 |

필리핀 다일공동체에 작지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 아주머니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러 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는 위치적으로 공항과도 관광지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분원과 다르게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봉사자들이 찾아 오기가 쉽지 않아서 평소 밥퍼 준비는 대부분 스템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소의 기적'이라는 자발적인 모금활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봉사 하러 이 먼 곳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가 정말로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음에 기쁨이 더해 집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p>신규후원회원 16.12.16~17.2.15</p>	<p>(주)서진강재, 강남희, 고성훈, 고옥순, 곽순자, 곽호정, 권상민, 권용대, 권혁명, 김경수, 김남은, 김명숙, 김미숙, 김민호, 김복실, 김선만, 김성대, 김성희, 김숙이, 김영순, 김은겸, 김은경, 김은애, 김은영, 김인, 김종선, 김종훈, 김준현(한선우), 김채란, 김태균, 김태기, 김태일, 김하영, 김현준, 김형균, 김혜은, 김홍해, 남은희, 마희열, 맹경숙, 박경순, 박경조, 박규형, 박수아, 박수진(문상유), 박승원, 박영석, 박오열, 박윤철, 박은미, 박은정, 박자매, 박종명, 박진숙, 박진혁, 박찬미, 박찬원, 박형석, 방진선, 백연수, 변영희, 부성현, 서미애, 서태화, 서한나, 석희구, 성민아, 손영기, 송창연, 송현근, 신근희, 신영미, 신정균, 신지철, 심규중, 안광식, 엄수덕, 옛날손짜장, 오현주, 우종욱, 유미옥, 유성현, 유승열, 윤마병, 윤정란, 윤정현, 이규창, 이나라, 이다경, 이덕용, 이동직, 이민희, 이상희, 이영수, 이영희, 이용주, 이용철, 이유경, 이인수, 이정삼, 이정철, 이종영, 이주현, 이지예, 이진근, 이춘식, 이태훈, 이희동, 임동은, 임치남, 임한순, 임희경, 장동원, 장병수, 장용란, 전아론, 전아인, 전은지, 전준모, 정공자, 정민철, 정복희, 정영숙, 조은아, 주정례, 최병용, 최선경, 최성남, 최수연, 최윤정, 최태섭, 한인형세무사무실, 홍승빈, 홍척기, 홍현우</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16.12.16~17.2.15</p>	<p>후원물품 / 배기선&이정선(쌀20kg2포), 서노협(마스크팩, 한방가글, 안전화 등),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약품), 영일제약(의약품), 이연제약(의약품), 정소희(의약품), 키즈웰(배빼로)</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16.12.16~17.2.15</p>	<p>후원금 / Alisa Zhou, 가람학원, 경기RCY, 단국대학교, 대박, 대한교회, 바히르오케스트라, 박진숙, 서천기독교교회(충남), 웅천고등학교(진해), 울산청소년문화공감, 인제대학교, 제일고등학교(영주), 조선대학교, 청운대학교, 카도, 큰은혜교회, 평거중앙교회(진주),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황채순참사랑교회</p> <p>후원물품 / 경기RCY(선물세트,의류,모자,모기퇴치제), 군산참사랑교회(악기,학용품,의류), 대한교회(학용품), 성덕대봉사동아리(학용품,의류), 울산청소년문화공감(학용품,의류,책,장난감), 청운대학교(학용품,놀이용품), 카누썩배(쌀), 큰은혜교회(쌀,사무용품), 하나투어(옷,잡화,학용품청운대학교(학용품,놀이용품), 한국교통대학교(학용품))</p>
<p>중국 다일공동체 16.12.16~17.2.15</p>	<p>후원금 / 사이공드림교회(쌀, 우유, 라면)</p> <p>후원물품 / 권윤경(아동간식 4회 지원), 남향숙(과일10상자, 과자), 농장경로원(생선 2상자), 리동경(사과5상자), 몽뉴(우유20상자), 보은학원(아동영화 관람 지원), 양현덕(크리스마스 선물비), 연길 기부천사(식재료, 과일, 생필품 외), 영광제빵(빵 4상자), 장리준(과일3상자, 음료3상자, 우유), 전영복(계2상자), 절강(라면, 아동간식), 정대서(점완구 외), 훈춘시 각 학교 학생 봉사팀 다수, 훈춘시 공상련 3조(쌀2, 밀가루4, 식용유), 훈춘시 민정국(과일, 음료훈춘 직업고등학교(우유, 과일, 빵 외))</p>
<p>베트남 다일공동체 16.12.16~17.2.15</p>	<p>후원금 / A PLUS, NAHAL, NGO남부협의회, ORION, 고갑순대표(닥터카),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신한은행 푸미흥지점, 아리랑화학, 오희승 집사님, 이애리님, 호치민중앙교회</p> <p>후원물품 / 사이공드림교회(쌀, 우유, 라면)</p>
<p>필리핀 다일공동체 16.12.16~17.2.15</p>	<p>후원금 / 류호열, 바랑가이Pulido주민일동, 박정은, 성차선, 최일도, 필리일스텝(Ruth, Rosemary, Rebecca, Linda, Jovy)</p>
<p>네팔 다일공동체 16.12.16~17.2.15</p>	<p>후원금 / American mission trip, Ashik, Lion's club, World race팀, 광주소망교회, 김지혜, 대사협네팔청춘팀, 도담교회, 루팍메모리얼인터내셔널학교, 백남수, 심비언교회, 아름다운가족교회, 유승완, 전북대학교, 지은, 진리와생명교회, 최은자, 최홍, 함께하는교회, 황혜진</p> <p>후원물품 / 대사협'네팔청춘'팀(컴퓨터 4대), 함께하는교회(교복)</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16.12.16~17.2.15</p>	<p>후원금 / 이해명, 이효은</p>
<p>미국 다일공동체 16.12.16~17.2.15</p>	<p>후원금 / DAVID W, TIDWELL, Michelle Lee, SANGYOOL YOM, SEONGUK YOM, 김금자 (Kum Ja Kim), 유성욱(Seong Wook Yoo), 이성 (Sung Yi), 정다슬 (Ji F Cheong), 정영림 (Young L Jung)</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정기후원	1:1 해외아동결연 (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천사기업(월 10만원)	기업이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후원입니다.	
	천사교회(월 10만원)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긴급한 사역에 우선으로 사용됩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예금주 :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ON M6N 4x7, CANADA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 | | |
|---|---|--|
| <input type="checkbox"/>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_____ 원 |
| <input type="checkbox"/>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 |

일시후원

- | | |
|---|---|
|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

후원회원 정보

- | | | |
|-----|--------------------------------------|------------------------------------|
| 이름 | 주민등록 앞번호 | (남/여) |
| 연락처 | <input type="checkbox"/> SMS수신동의 이메일 | <input type="checkbox"/> Email수신동의 |
| 주소 | <input type="checkbox"/> 우편물수신동의 | |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 | | |
|--------------|---|
| 출금은행 | 예금주 |
| 계좌번호 | 이체희망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 (남/여) |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주소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fax 02-2243-8005  다일공동체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s No. 192 at Jangwani Beach, Kinondoni Muniopality,
Dar_es_salaam city Tanzania
Tel. +255-755-154-246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대표번호 02-2212-8004로 전화주시면 전 분원, 전 부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dail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파리)
181기 4월 12일~4월 16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 031 585 2004
010 6375 8004
홈페이지 : www.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김철민 형제 010 2752 9004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개설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추가해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작성
예금주 서명 必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다일직원
확인전화